

머리에 불붙은 것처럼 공부하라.
가시달린 쇠 채찍을 맞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공부하라.

-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나도 이제 학생이예요 전국 초·중·고교가 3월 2일 개학한 가운데 종립 초등학교인 은석초등학교(교장 김한기)도 2011학년 입학식을 갖고 128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학부모를 비롯해 선생님과 재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학식에 참석한 새내기 학생이 합장을 하고 삼귀례를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불교사회복지 '강 건너 불'

종립대조차 인재불자 인식 없이 인력 배출... 교육기관 특성화 등 시급

불교사회복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중생구제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손꼽힌다. 특히 대사회 활동을 통해 포교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 불교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불교계 내부에서도 낮아 불교계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 종립대학인 동국대조차 사회복지학과를 2007년에야 설치했다. 그러나 동국대 불교대학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육 목표에는 불교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학사 과정에도 1학년 전공 기초의 '불교사회복지론'이 전무하다. 불교 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

과 교육과정에 가깝다. 다만 불교대학원 내 불교사회복지학과 교육 목표에서만 '불교사회복지인력 양성'이라는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불교·사회복지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천대종립 금강대도 마찬가지이다. 천대종립 위덕대는 아직 사회복지학과가 없다.

반면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는 교육목적을 안내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개신교계 숭실대도 사회복지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학대학 교육 목표에 "기독교 정신을 가진 건전한 시민 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전문 승려를 배출해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를 담당할 재가불자 복지사를 찾기

어렵다. 결국 시설장과 실무자가 종교적 이념의 차이를 갖고 사회복지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무관심도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고경환 한국보건의사회원 연구위원은 2010년 열린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불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 시절장은 58.2%가 재가불자이고, 출가자는 35.9%로 나타났다"며 불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종사하는 스님의 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이 중 비구 스님은 20.8%, 비구니 스님은 15.1%로 조사됐다.

불교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종사하는 스님들은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교육 복지

를 위해 인덕원이 위치한 은평구에서 불교 인재를 양성할 유아교육기관을 구상 중이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건전한 불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신뢰를 통해 이웃 종교의 복지시설이 양적으로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병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불교 사회복지에 불교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오늘날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불교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 철학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박기범 · 이나은 기자

제15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코이랄라 이사장 실천부문 헤티아랏치, 문학부문 모옌·이근배 공동수상



아누라다 코이랄라 모옌 이근배

네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자 네팔 인권단체 마이트리 네팔재단 이사장인 아누라다 코이랄라(62)가 제15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리세나 만다 헤티아랏치(72)를, 문학부문 대상에는 중국 소설가인 모옌(56)과 이근배 시인(71)을 공동 선정했다.

만해대상은 만해 한운운(1879-1944)의 생명·평화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에서 거행된다. 이나은 기자 [수상자 소개는 다음주 계속]

조계종 정부예산 신청 안한다

"중단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고지원 신청과 집행은 보류해달라. 단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사업과 더불어 지역 문화·복지 사업은 예외로 한다."

지난해 정부예산 신청 및 집행 보류를 선언한 조계종 총무원이 이 같은 중무지침을 전국 본말사에 하달했다.

조계종은 3월 3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3층에서 전국 교구본사 총무국장 회의를 열고 중무지침을 전

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서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정부 보조비에 대한 신청 및 집행 보류의 중단 기본 입장은 정부 여당에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 각 교구 본말사는 2012년 템플스테이 사업과 전통사찰 보수지원비, 문화재보수 지원비 등 국고지원을 일체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2010년 지속 사업과 지역 문화복지 사업은 예외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전통문화수호 및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본말사 결의대회' 준비상황이 점검됐다.

3월 10일에는 보은 범주사 11일 직할교구 16일 쌍계사, 17일 범어사 19일 통도사, 4월 3일 동화사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관련기사 4면

'자비의 미안마 돕기'

현대불교신문사와 미안마문화원은 불기 2555년을 맞아 연중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를 전개합니다. 미안마 돕기 캠페인은 어려운 미안마 국민들을 보살핌으로써 불교 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을 되살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나눔의 향기가 온세상의 무명을 밝히는데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내역은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상세히 보도합니다. 후원금은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공동우물 파기, 출가인식 지원, 기술대학 건립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지정 후원금가능). 후원물품은 미안마문화원 봉사단이 직접 현지에 전달합니다.

담당자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11-9039-1239, 현대불교신문사 이동경 부장 010-7339-8688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국제불교지도자협회)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4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826호 CONTENTS

▶3 인터뷰/현장 스님 맑고 향기롭게 신임 이사장



▶5 현장속으로 법정 스님 1주기 추모법회



▶6 불교복지의 성장 성장 동력 어디서 찾을까



▶19 남진세 돌 조각전 차가운 돌에 깃든 부처님 온기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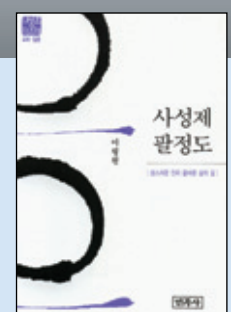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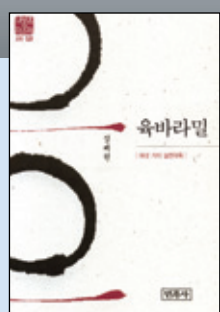
☞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족사 시리즈 책입니다.

» 교리·입문 사성제·팔정도



이필원 _ 값 6,500원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 교리·입문 육바라밀



성재현 _ 값 6,500원
여섯 가지 실천 덕목

» 수행·명상 생활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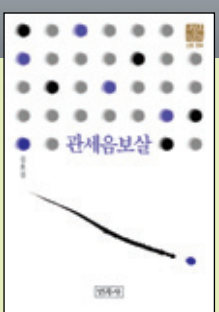
김남선 _ 값 6,500원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 수행·명상 위빠사나



정준영 _ 값 6,500원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 수행·명상 관세음보살



김호성 _ 값 6,500원
나무관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 수행·명상 아미타불



여여법사 _ 값 6,500원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를 기억하지 마세요

» 수행·명상 사심구제



구미래 _ 값 6,500원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